

광주일보 김형호기자 이달의 기자상 수상



광주일보 사회부 김형호(오른쪽) 기자가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06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김 기자는 '전파관리스 불법 감청 의혹' 연속보도로 상을 받았다. /박기용기자 pboxer@

박종철 광주·전남 ROTC동우회장 취임



광주·전남 ROTC 동우회회는 지난 25일 제23차 정기총회와 박종철(앞줄 오른쪽 두번째) 회장 취임식을 열고 ROTC 후배 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광주·전남 ROTC 동우회 제공>

순천경찰 이주여성 운전면허교실 운영



순천경찰(서장 이명호)은 최근 순천·광양경찰간 협업으로 결혼이주여성상을 상대로 운전면허교실 및 범죄예방교실을 열었다. /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서구지회 정기총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서구지회(회장 이선규)는 지난 25일 임우진 서구청장과 황현택 서구의회의장,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서구지회 제공>

5m 높이서 텀블링·점프... 스텐트 치어리딩 아시나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클리닝타임 정기 공연 '본첵스' 팀

하계U대회 계기 광주 첫 창단 야구장서 월 4차례 선보일 계획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지난 2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시범경기에서 5회 말에 끝나고 '클리닝타임'이 시작되자 관중석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여성 치어리더가 남성 치어리더의 도움을 받아 관중보호를 위해 설치한 그물망보다 높게 점프하며 아찔한 광경을 연출했다. 우려와 달리, 5m 높이에서 텀블링까지 마치고 무사히 착지한 그녀는 관중을 향해 환하게 웃어보였다. 5분여 공연이 끝나자 관중은 안도와 환호, 응원이 섞인 박수로 화답했다.



광주지역 최초 스텐트 치어리딩팀 '본첵스' 소속 선수들. 왼쪽부터 신승우·정승권·양현수·김형지·이유정씨.

올해부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클리닝타임 때 '스텐트 치어리딩'(stunt cheerleading) 공연이 펼쳐진다. 스텐트 치어리딩은 야구와 배구경기장에서 흔히 응원도구를 흔들며 관중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선수들을 응원하는 '치어리딩'과는 다르다. 체조를 기반으로 점프와 토스(몸 던지기), 텀블링 등 고난도 동작을 선보인다. 공식 경연대회도 열리는 스포츠 한 종목이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스포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텐트 치어리딩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본첵스'는 조선대학교 정승권(24·건축공학 3년)을 단장으로 신승우(22·건축학과 2년)·김형지(여·23·체육학과 4년)·이유정(여·22·체육학과 3년)씨와 동신대 양현수(21·운동처방학과 2년)씨 등 5명이 모인 광주지역 최초로 창단한 '스텐트 치어리딩' 선수팀이다. 이들은 지난해 '제1회 광주시 생활체육치어리딩대회'에서 그룹스텐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광주 하계U대회 전국 대표 치어리딩팀 선발전에서 당당히 준우승을 차지한 실력파이기도 하다. 광주는 물론, 국내에서조차 생소한 스텐트 치어리딩팀 창단은 광주 하계U대회가 계기가 됐다. 지난해 '대학생 U원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2015년 국가대표 치어리딩 선수로

활동하던 단장 정승권씨와 김형지씨는 박선경(사광주치어리딩협회장과 선수모집에 들어갔다.

하지만, 모집 자체가 여의치 않았다. 각 대학을 돌며 선수를 모집해도 생소하고 열악한 스포츠에 도전하려는 학생들이 없었다. 어렵사리 10명의 선수를 모집했지만, 응원제가 끝나자 별뿔이 흩어졌다. 그렇게 남은 선수가 이틀 5명이다.

"워낙 위험하고 힘든 기술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비인기 종목이라 열악하고 비전도 없죠. 당연히 취업난에 쫓기는 대학생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우선 스텐트 치어리딩을 알리지'고 의견을 모았다. 기아타이거즈 공개 치어리더 모집에 참가했고, 그 인연으로 정기적인 공연기회를 얻었다. 대학생인 탓에 강의 없는 시간과 휴일에 모여 연습하는 등 열의도 대단하다.

위험한 동작이 많아 작은 부상은 늘 달고 산다. 그럼에도 "동료를 믿지 않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며 자신들의 강한 동료애를 자랑했다.

본첵스는 27일 시범경기 첫 공연에 이어 다음달 6일 본첵스



지난 2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 시범경기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본첵스 선수들.

가 지도하는 진제초 학생들의 무대를 선보인다. 이후 7일은 또 다시 본첵스가 무대에 오른다. 아직 구단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매달 4차례 이상 꾸준한 치어리딩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장 정승권씨는 "관중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선수들도 응원에 힘입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며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여건이 되는 한 공연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막내가 크면 온가족 나들이 한번 하고 싶어요"

전남대병원서 일곱 차례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김성희씨

"막내가 조금 더 크면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던 온 가족 나들이를 꼭 하고 싶어요." 전남대병원(병원장 윤택업)에서 40대 산모가 무려 일곱 차례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았다.

28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김성희(41·목포시)씨는 임신 37주 5일째인 지난 25일 오전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김윤하 교수 집도하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1시간 수술 끝에 몸무게 2.95kg의 아들을 출산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

병원 측은 "국내에서 7차례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는 학회나 의료계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 없다"며 "사실상 전국 최초라고 할 정도로 희귀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현재 1남 4녀를 키우고 있는 김씨는 지금까지 모두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았다. 4째를 가졌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 아이를 잃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다.

전남대병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자녀가정을 이루고 있는 김씨를 위로와 격

려하기 위해 지난 28일 병원 2동 분만실에서 축하행사를 열었다. 진로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씨는 "무엇보다 막내가 건강하게 태어나줘 고맙다"며 "수술 전 용기를 주고 수술도 잘 마쳐준 김윤하 교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녀의 다섯 번과 여섯 번째 수술을 집도했다. 누구보다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김 교수는 일곱 번째 수술이었던 만큼 무엇보다 환자의 컨디션에 신경을 썼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진로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김윤하 교수는 "무엇보다 산모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돼 있었다"며 "이미 여러차례 수술받은 탓에 어느 임신부와 다른 수술법을 택했지만, 어려움 없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환자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대병원에서 일곱 차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한 김성희(왼쪽)씨와 수술을 집도한 김윤하 교수가 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를 바라보며 미소짓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배미경 U대회 협력담당관 미대사관 주관 토론회 참석

배미경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사진)이 29~30일 열리는 '제10회 한미여성리더십세미나'에 참석, U대회 성공 개최 경험을 통한 여성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세미나는 주한미국대사관과 월드컬처오픈이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올해에는 '21세기 여성의 리더십'을 주제로 서울시 중구 월드컬처오픈 코리야에서 개최된다.

배 담당관은 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를 대표하는 스포츠 마케팅, 해외 교류 전문가다. 그는 29일 세션 1 '리더십: 변화하는 사회 속 여성의 리더십 재정립하기'에서 토론자로 나선다.

배 담당관은 "광주U대회의 유치부터 개최까지, 그리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활동 등을 통해 얻은 여성 리더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강성용·박준자씨 장남 유락군 정병수(농협사료 나주공장)·이애순씨 장녀 다은양=4월17일(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마리아쥬스퀘어, 피로연 4월2일(토) 오후 5시 광천동 수버니웨딩홀.
- ▲정원순·이순희씨 장남 재식군 윤종록(조선대 교수)·함영순(광주예술영재교육원)씨 차녀 이영양=4월3일(일) 낮 12시 40분 농성동 래퍼스타 2층 열무채움.
- ▲송영희씨 차남 진영군 김재범(함평법무사)씨 장녀 경인양=4월9일(토) 낮 12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W스퀘어 8층 제플출 010-2036-7494.
- ▲조영목(공인중개사)·설용희씨 장남 인식군 송병양·이갑숙씨 장녀 민아양=4월10일(일) 오후 1시 경남 창원시 웨딩의전당.

증친회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구례분원(분원장 이용권) 정기총회=30

- 일(수) 오전 11시 구례분원 이화회관, 문의 010-7624-2349.
- ▲경주김씨 광주·전남총친회 재광 이사회=4월6일(수) 오후 6시30분 광주시 동구 중앙로 예술의거리 건너편 화랑궁 문의 김재찬 010-6455-6296.
-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함평분원(분원장 이석현) 정기총회=4월15일(금) 오전 11시 함평군 축산업협동조합 3층 회의실, 문의 010-4155-0120.

동문회

▲송원고 총동문회(회장 박찬갑) 4월 정기월례회의=4월4일(월)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텔리하우스 062-384-7447.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음주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치매, 인터넷 등 무료 상담, 열린마음상담센터(오주·두암·무등·우산·각화)에서 매주 월·금 오후 2시~6시까지, 문의 062-526-3370.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주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각종 체험활동,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모집

-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발님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 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체결·홍보, 손발님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

사센터 062-613-5584. ▲심정재가 장기요양기관 회원=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정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부음

▲최태순씨 별세 신인수·선심·애순·선희·경희씨 모친상=발인 30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謹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이영규 님(여/86세) 子/子婦: 김영만/홍숙, 영배/하영란, 영선 孫: 김국진/동원, 건국/정우연, 정다원/진재영 *발 인: 3월 29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1	301호 故양장섭 님(남/63세) 子/子婦: 변동갑/박경희, 병효/동섭, 강진숙/동천 女/婿: 변정혜/이경, 박종화 未亡人: 임금순 *발 인: 3월 30일 *장 지: 국립5.18묘지 *연락처: 227-4382
402호 故박귀이 님(여/91세) 子/子婦: 장은숙/전종화, 이원경 女/婿: 전종갑/임종갑, 종과/정진국, 종해 孫: 전성용/장원 *발 인: 3월 29일 *장 지: 화순동면선영 *연락처: 227-4314	102호 故변형연 님(남/82세) 子/子婦: 변동갑/박경희, 병효/동섭, 강진숙/동천 女/婿: 변정혜/이경, 박종화 未亡人: 임금순 *발 인: 3월 30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000
101호 故김은옥 님(여/54세) *발 인: 3월 29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